

즐거 당기니 탐스러운 고구마가 '주렁주렁'

농진청, 수확철 맞아 '어린이 고구마·땅콩 수확체험' 행사 열어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고구마·땅콩 수확철을 맞아 14일 완주군에 위치한 국립식량과학원 발작물 신 품종 전시포에서 어린이 고구마·땅콩 수확 체험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식량작물을 직접 만지고 수확해보는 활동을 통해 우리 농산물을 먹거리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자연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관내 유치원 어린이 26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발열 기증 인후통 여부 등을 미리 확인했으며, 행사 내내 마스크도 착용했다.

어린이들은 고구마와 땅콩을 직접 캐보고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새 품종 '소담미 고구마'와 '세원 땅

콩 등을 밟보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식량작물 전시포를 견학하며 콩 등 여러 발작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작물 생김새도 관찰했다.

체험에 참가한 한 어린이는 "즐거 당기니까 고구마가 주렁주렁 떨어 나와 신기했어요. 우리가 먹는 고구마가 열매가 아니라 덩이뿌리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라며 즐거워했다.

어린이들을 인솔한 전북혁신도시 민속사관유치원 이난희 원장은 "밤 흘려 농작물을 가꾸는 농업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먹거리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체험 활동이 아이들에게 행복한 추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자

원파 안승현 연구사는 "이번 체험행사를 꾸준히 열어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에 대한 재미있는 추억을 선사하고 소중함도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주요 고구마 품종으로는 '소담미', '호감미', '풍원미'가 있다. 땅콩은 '세원', '해울', '탑실', '콩은 비풍', '청자호' 등이 있다. '소담미'는 단맛이 강하고 덩굴쪄병 저항성이 중간 정도이며, 저장성이 우수하다. '세원'은 수량이 많고 종자 껍질 색깔이 적색인 꽃망울을 품종이다. 자세한 품종 특성은 농촌진흥청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14일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발작물 품종 전시포에서 열린 '고구마 수확 체험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수확한 고구마를 보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경영에 기적은 없다"

이학경 콩테크 대표
전주 개최 J포럼 강의

"기적은 없다. 고수성장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마라. 매 순간 치열한 과정이 있을 뿐이다"

14일 전주를 찾은 '콩테크'의 이학경 대표가 젊은 벤처인들 앞에서 던진 묵직한 화두다. 이 대표는 이날 전주시 팔복동 '전주창업혁신센터'에서 열린 J포럼 강사로 전주를 찾았다.

'콩테크'는 경기도 판교의 IT스타트업으로 최근 국내외서 주목을 받는 셋별이다.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멤버십 출신 엔지니어 8명이 손잡고 2014년 창업해 매출을 올해 50억 원, 내년 100억을 목표로 달리고 있다. 위치추적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호텔객실 원격 모니터링,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 50개 이상의 사물인터넷(IoT)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아파트의 공동 현관문을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는 '모바일-스루(Mobile-Through)' 등이 대표적 개발 상품이다.

이 대표는 "국내 스타트업이 소프트웨어에 편중돼 오히려 하드웨어 분야가 경쟁력 있다고 판단해 기술창업했다"며 "사업은 마라톤처럼 외롭고 고독한 길이다. 늘 간절하고 오직 한 마음으로 원칙과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히 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J포럼은 전주시와 캠퍼스종합기술원이 벤처기업의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달 시작했다. 9월 16일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KIET) 부원장 출신 전북대학교 오명준 교수가 '산업 기술 정책과 기술사업화'를 주제로 강의했다.

11월 11일에는 창업플랫폼 기업 'N15'의 류성준 대표가 나와 '4차산업 혁명과 기업이정'을 주제로 12월 9일에는 세계적인 창업투자회사 '스파크랩'의 이희운 이사가 출연해 '엑셀러레이터의 눈으로 바라 본 투자를 강의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28일 지적축량 혁신 경진대회

전북도와 협업 수출활성화 추진

전북농협, 수출농가 조직화 현장컨설팅 진행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전북도청(도지사 송하진)은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수출농가 현장 컨설팅을 정읍단풍마인조합 공동사업장과 배 재배농가 과원에서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현장 컨설팅에서는 배의 수확 후 예냉, 예건 저장방법 등의 관리 기술에 대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최미희 박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출농가 현장 컨설팅은 배, 사과, 복숭아, 사인머스켓, 수박, 토마토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고품질 농산물 재배기술, 수출계약관련 병해충 방제방법, 수출물

류임 사례, 수확 후 관리까지 농가에서 꼭 필요로 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으로 실시된다.

한편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6대 품목별 수출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수출농가 조직화교육, 수출마케팅 지원, 신규품목 육성, 수출 기반사업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수출을 위해 애쓰시는 농가와 농협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전북농협은 수출 신규품목 육성과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관련 사업을 공고히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는 14일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새만금 국가산단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조공장을 건립하기로 ㈜유니테스트와 협약을 체결했다.

차세대 태양전지 제조공장, 새만금산단에 '등지'

전북도-새만금청, 유니테스트와 1213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새만금 국가산단에 차세대 태양전지 제조기업이 들어설 전망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새만금의 입지로 공고히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새만금 국가산단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대규모로 양산하기 위한 제조공장을 건립하기로 (주)유니테스트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유니테스트 김종현 대표이사, 신원식 전북도 정부부지사,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김익준 군 산시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주)유니테스트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산단 1공구 6만16,000㎡(22만평)에 2024년까지 1,213억원을 투자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조공장을 건립하고, 300여명의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반도체 검사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하

고, 관계기관과 기업이 집적화되어 태양광 분야에 대한 시너지(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요충지'면서 '우수한 지역인재' 등을 통해 제품 상용화를 앞당기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나간다는 포부를 밝혔다.

(주)유니테스트는 그간 한국화학연구원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고효율화 원천기술 이전 및 공동연구 협약 체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상용화 연구 국책과제 선정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차세대 태양전지의 광전변환 효율을 14.8%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국립재생에너지 연구소로부터 세계최고 효율을 인증 받았다.

또한 (주)유니테스트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대한 대규모 양산기술과 노하우 확보를 통해 한국전력의 유리 창호용 태양전지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현 (주)유니테스트 대표이사는 "새만금에는 거대한 태양광발전소가

있고, 관계기관과 기업이 집적화되어 태양광 분야에 대한 시너지(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요충지'면서 '우수한 지역인재' 등을 통해 제품 상용화를 앞당기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나간다는 포부를 밝혔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주)유니테스트가 새만금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전진기지로 성장하는 데 큰 축을 담당해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새만금에서 기업생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도 정부부지사는 "(주)유니테스트가 새롭게 시작하는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태양광 모듈사업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전진기지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며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새만금산단에서 고기술 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경진원, 20일 소상공인·예비창업자 위한 소통 능력 향상 교육

전라북도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용 이하 경진원)이 운영하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는 오는 20일 '소통능력'을 주제로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을 개최한다.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은 도내 소상공인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교육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공감능력의 향상을 통해 자아를 가꾸고, 나아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주요점을 두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조직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객 응대 방법을 개선해 소상공인의 경영에 도움이 되 고자 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서 위치한 전북소상공인회합센터에서 진행된다. /김윤상 기자

www.fplove.or.kr
축! 전주매일 창간
농지연금 신청하고~ 생활자금 매월 받고~

315 농지연금지급01 1,160,000
415 농지연금지급02 1,160,000
0515 농지연금지급03 1,160,000
0615 농지연금지급04 1,160,000
0715 농지연금지급05 1,160,000
30815 농지 1,160,000
30915 농지 1,160,000
130915 농지 1,160,000
130915 농지 1,160,000

부모님 통장으로 매월 농지연금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힘든 농사일을 계속 해오신 우리 부모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으로 부모님의 근심을 덜어주세요.

농지연금이란? fb 농지은행 kfn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달 지급하는 제도로서, 경력이나 담보로 인한 추가소득 가능하고 부부 모두 가입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처: 65세 이상 / 영장능력 5년 이상 보유인

농지연금 상담문의 1577-7770

중소기업정책자금 쪼개기 대출 허점 드러나

3억원 이하 대출 감시체계 허점

최근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이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 정작 사용 목적에 대한 감시 사각지대가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억 원 이하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업체는 지난 2018년 1만 8475개에서 2020년 2만 836개로 12.8% 늘었다.

전체 지원건수의 80~90%에 달하는 수치다. 3억 원 이하 운영자금 지원금액 총액도 같은 기간 2조 5009억 원에서 3조 523억 원으로 22% 늘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용도목적 외 사용점검은 실시하지 않아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는 현행 규정상 운영자금은 3억 원 이하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만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나가게 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4월 권익위 제보로 3억 원 이하 정책자금 대출의 감시체계 허점이 드러났다.

중소기업 A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통해 2018년 1억원, 2020년 2억원과 1억원, 2021년 2억원까지 총 6억원을 대출받았다.

우선 중소기업에게 장기·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중소기업정책자금이다. 거액의 정부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사용 점검은 없었다.

A사가 중기부의 자금 사용 점검 기준 3억 원을 넘지 않도록 '쪼개기 대출'을 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A사가 목적 외로 대출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부패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을 중소기업부에 이첩했으나, 업체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중기부는 뒤늦게 채권회수를 추진 중이다. 심지어 중진공에서 '쪼개기'로 도합 6억 원을 빌린 A기업의 경우 2021년 2월 마지막에 2억 원을 대출받고 두

달 뒤인 4월 폐업했다. 폐업을 앞둔 회사에 2억 원의 대출을 해줄 정도로 중진공의 관리감독에 빈틈이 많은 것이다.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이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 정작 사용 목적에 대한 현행 감시체계마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잔액 보유기업 수는 2017년 약 7만2000곳에서 꾸준히 늘어 2021년 9월 기준 10만 곳을 넘었다.

하지만 지난해 대출자금 보유기업 대비 점검실적은 4%에 그쳤다. 2021년에도 3%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신영대 의원은 "이번 권익위 제보를 통해 감시체계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현행 감시체계를 정비해 3억 원 미만 대출도 특별 점검 기간 등을 마련해 불시에 목적 외 사용 점검이 필요"라며 "국정감사에서 이를 점검해 현행 제도를 보완 조치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28일 지적축량 혁신 경진대회

IX한국국도정보공사(사장 김정렬·IX공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실현을 위해 오는 28일 '지적축량 혁신 경진대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이는 IX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혁신의 일환으로 신속한 지적 서비스 처리, 장비 개선 등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위해 내부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IX공사는 지난 8월 18일부터 약 1개월간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적축량 혁신방안을 찾기 위한 전국 아이디어 공모, 예선을 통해 36개의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이후 외부 전문위원들을 통해 공정한 평가를 거쳐 13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 전 과정을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IX공사는 경진대회를 통해 도출되는 혁신 아이디어 중 현장에 적용 가능한 과제에 대해 즉시 현장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고, 일부 과제는 시스템 또는 장비의 개선을 통해 업무효율성 향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